

『管子』의 陰陽五行論

李 明 載*

국문초록

본고는 『管子』에 보이는 陰陽五行論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陰陽과 五行은 처음에는 각각 자연현상을 나타냈으나, 春秋戰國時代를 거치면서 抽象化되고 통치 이념화의 과정을 거친다. 陰陽五行의 통치 이념화는 『管子』의 時令思想에서 시작되었다. 『管子』에서는 富國強兵과 民生安定을 목적으로 君主가 행하는 대부분의 정치 행위와 사회제도를 陰陽五行과 연계시켰다. 『管子』에 나타난 陰陽五行論을 살펴보면 첫째, 『管子』의 時令思想은 民生안정을 목적으로 陰陽五行論을 농업생산증대에 연계시킨 爲民思想이라고 할 수 있으며 陽德陰刑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管子』에서의 天은 자연적 天보다는 의지적 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天人關係로 보면 災異說을 포함하는 天人感應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무게 중심은 하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陰陽과 五行은 『管子』에서 최초로 抽象化되었다. 계절에 대해서는 陰陽과 五行이 배속되고, 色·味·音·數·方位·兵器 등에 대해서는 五行이 배속되었다. 그러나 天干을 陰陽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陰陽과 五行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陰陽五行論과 관련된 각 편의 내용적인 차이는 『管子』의 저자와 저술연대가 篇 별로 다를 수 있다는 說을 뒷받침한다. 『管子』의 陰陽五行論은 이후 『呂氏春秋』, 『淮南子』, 『春秋繁露』, 『白虎通義』 등으로 전승되면서 중국철학의 주요 골격 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제어] 陰陽, 五行, 天人感應論, 時令思想, 爲民思想

목 차

- | | |
|------------------------|------------------------|
| I. 緒 論 | IV. 『管子』 陰陽五行論의 特徵과 意義 |
| II. 『管子』 이전의 陰陽五行論 | V. 結 論 |
| III. 『管子』 陰陽五行論의 主要 內容 | |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leeysan@hanmail.net

I. 緒 論

古代 中國에서 春秋戰國時代(B.C.770~B.C.221)는 비록 政治的으로는 群雄割據하고 弱肉強食하는 극도의 혼란기였지만, 社會的으로는 철제 농기구와 牛耕의 보급으로 農業生産力이 크게 증가하고, 잉여생산물의 유통을 위한 商業이 발달하던 시기였다. 학문적으로는 諸子百家가 출현하여 다양한 哲學思想을 꽃피우던 시기였으며, 陰陽五行論도 이 시기에 들어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陰陽家라는 하나의 學派를 형성하였다. 陰陽五行論은 동아시아에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中國哲學의 주요 골격 중의 하나이다. 陰陽과 五行은 처음에는 각각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春秋戰國時代를 지나면서 추상화되고 철학사상으로 발전하였다. 陰陽五行論도 天人關係와 마찬가지로 自然 중심에서 人間 중심으로, 人間 중심에서 다시 客觀化의 과정을 거쳤다. 陰陽五行論의 人間化는 먼저 정치 분야에서 출발했다.

齊나라(B.C.1046~B.C.221)는 周나라를 건국한 文王이 宰相이었던 姜太公에게 봉토를 내린 제후국이며, 위치는 현재의 산둥반도 지역이다. 齊나라는 약소국이었으나, 桓公 재위기간에 管仲의 개혁적인 富國強兵 정책을 통해 春秋五霸가 되었다.

春秋時代 齊나라의 宰相을 지낸 管仲은 정치의 근본을 민생의 안정에 두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물가안정정책과 빈민구제정책 등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곡간이 가득 차야 禮節을 알고, 衣食이 넉넉해야 榮辱을 안다.”¹⁾는 말에 그의 爲民思想이 잘 드러나 있다. 時令思想의 근본적인 목적은 富國強兵으로서 陰陽五行論을 적용하여 때에 알맞은 政令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國內外 先行研究로는 白奚의 『中國古代陰陽與五行說的合流 - 『管子』陰陽五行思想新探』, 樂愛國의 『『管子』의陰陽五行說與自然科學』, 曹立明的 『『管子』四時觀念的生態意蘊』, 조주는 · 윤무학의 『『呂氏春秋』에서의 陰陽과 干支의 結合』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管子』에 나타난 陰陽五行論의 特徵과 意義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陰陽五行論의 淵源과 전개과정을 살피고, 그 다음 『管子』 중에서 陰陽五行論과 관련된 「乘馬」, 「幼官」, 「幼官圖」, 「禁藏」, 「四時」, 「五行」, 「輕重·己」 편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管子』는 篇 별로 著者と 著述年代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時令思想에 나타난 陰陽五行을 중심으로 각 篇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II. 『管子』 이전의 陰陽五行論

陰陽에 관한 기록은 『尙書』에 보인다. 「夏書·禹貢」편에는 “岷山の 陽은 衡山에 이른다.”²⁾는 구절이 있는

1) 『管子』 「牧民」,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데, 여기서 陽은 岷山의 남쪽이라는 의미이다. 『周書·武成』편에는 “말을 華山의 陽에 돌려보낸다. 소를 桃林의 들판에 놓아준다.”³⁾는 구절이 있다. 武王이 紂를 물리친 후 백성들에게 위로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陽은 華山의 남쪽이라는 의미이다. 『詩經』에는 “산을 보고 그 陰陽을 살피다.”⁴⁾는 구절이 나온다. 태양빛을 기준으로 산의 방위를 살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까지의 陰陽은 주로 태양빛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적 자연현상의 관념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春秋時代 『左氏傳』에서는 陰陽이 햇빛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에서 계절을 변화시키는 六氣로 인식이 전환된다. 『左氏傳』「昭公」원년 편에 “하늘에는 六氣가 있는데, 내려와 五味를 낳고, 색깔로 드러나 五色이 되며, 소리로 드러나 五聲이 되고, 지나치면 六疾을 낳는다. 六氣는 陰, 陽, 風, 雨, 晦, 明라 하는데, 나뉘어 四時가 된다.”⁵⁾는 기록에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의 六氣 중에서 陰陽이 처음에 배열된 것은 그 중요도가 감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五行에 관한 기록은 『尙書』에는 보이지만, 『詩經』에는 나오지 않는다. 『尙書』「虞書·大禹謨」편에서 禹 임금의 “德은 오직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정치는 백성을 부양하는데 달려 있으니 水火金木土穀은 오직 닦아야 합니다.”⁶⁾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는 五行이 穀보다 먼저 배열되고, 水火金木土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五行과 穀이 병기된 것은 民生에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며, 그 중요도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五行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각 行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 『周書·洪範』편에는 “五行은 첫 번째를 水라 하고, 두 번째를 火라 하며, 세 번째를 木이라 하고, 네 번째를 金이라 하며, 다섯 번째를 土라 한다. 水는 潤下라 하고, 火는 炎上이라고 하며, 木은 曲直이라 하고, 金은 從革이라 하며, 土는 稼穡이라 한다. 潤下는 잔맛, 炎上은 쓴맛, 曲直은 신맛, 從革은 매운맛, 稼穡은 단맛을 만든다.”⁷⁾는 기록이 있다. 먼저 五行의 종류와 순서, 특성, 맛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五行의 배열 순서는 「虞書·大禹謨」편의 水火金木土 순서와는 다르게 水火金木土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는 五行의 생성순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尙書』「夏書·甘誓」편에는 “有扈氏가 五行을 업신여기고, 三正을 태만히 한다.”⁸⁾라는 기록이 있으나, 爲政者로서의 다섯 가지 의무를 뜻하고 水火金木土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梁啓超도 이 기록에 대해 “다섯 가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업신여기고, 세 가지 정의를 태만히 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⁹⁾

五行은 민간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五材로부터 시작된다. 五材에 관한 기록이 五行보다 먼저 나오기 때

2) 『尙書』「夏書·禹貢」, “岷山之陽, 至於衡山.”

3) 『尙書』「周書·武成」, “歸馬於華山之陽, 放牛於桃林之野.”

4) 『詩經』「公劉」, “既景迺岡, 相其陰陽.”

5) 『左氏傳』「昭公」, “天有六氣, 降生五味, 發爲五色, 徵爲五聲, 淫生六疾. 六氣曰陰陽風雨晦明也, 分爲四時.”

6) 『尙書』「虞書·大禹謨」,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惟修, 正德利用厚生惟和.”

7) 『尙書』「周書·洪範」,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8) 『尙書』「夏書·甘誓」,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9) 梁啓超·徐復觀·郭爲·馮友蘭 著, 김홍경 編譯,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38쪽 참조.

문이다. 『左氏傳』「襄公」27년 편에 “하늘은 五材를 낳고,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쓰니 하나라도 없앨 수 없다. 누가 무기를 없앨 수 있는가?”¹⁰⁾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五材는 민간의 필수적인 다섯 가지 생활재료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무기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左氏傳』「昭公」11년 편에 “또 비유하건대 하늘에 五材가 있어 장차 그것을 쓰는데 힘이 다하면 그것을 폐기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¹¹⁾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五材는 다섯 가지 생활재료로서 쓰다가 버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左氏傳』「昭公」25년 편에 “하늘에는 三辰이 있고, 땅에는 五行이 있다.”¹²⁾는 기록에서 五行이 나오지만 용어만 바뀌고 의미상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左氏傳』에서의 五行 관념은 민간이 사용하는 다섯 가지 생활 재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左氏傳』의 五行 관념은 五行의 종류와 순서, 특성, 맛이 제시된 『尙書』「周書·洪範」편보다도 오히려 자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管子』陰陽五行論의 主要 內容

1. 『管子』의 著者 및 構成

春秋時代 齊나라 宰相을 지낸 管仲의 思想이 담겨져 있는 『管子』는 著者和 성립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은 문헌이다. 『管子』의 성립 시기는 대체로 戰國時代 중반 이후로 보는 說이 유력하다. 『管子』의 著者는 확실하지 않으나, ‘管子曰’, ‘管子對曰’, ‘管子問曰’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管仲 자신이 직접 저술했을 가능성은 낮고 제자나 稷下學者 등 다수의 著者에 의해 지어졌다는 說이 유력하다. 齊나라는 뛰어난 학자들을 초청하여 稷下學宮에서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치적 자문에 응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稷下學者들이 『管子』의 저술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管仲(B.C.?-B.C.645)의 이름은 夷吾, 자는 仲이며 管鮑之交로 유명하다. 管仲은 가난하게 태어나 부자 친구인 鮑叔牙와 장사를 하면서 정치참여의 기회를 엿보다가 齊나라 僖公의 인정을 받아 公子 糾의 스승이 되었으며, 鮑叔牙는 公子 小白의 스승이 되었다. 이후 왕위계승 경쟁과정에서 자신이 활을 쏘 죽이려 했던 公子 小白이 桓公으로 즉위함으로써 죽음에 직면했으나, 鮑叔牙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오히려 齊나라의 宰相이 되었다. 宰相이 된 후 桓公을 보좌하여 개혁적인 부국강병정책을 통해 霸業을 실현하였다. 管仲에 대해서는 孔孟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子路가 “桓公은 公子 糾를 죽였고, 소홀도 그를 따라 죽었는데 管仲은 죽지 않았습니다. 仁하지 않습니다.”고 하자, 孔子는 “桓公이 제후들을 규합할 때 무력으로 하지 낳은 것은 管仲의 노력이니 그 仁과 같겠는가?”¹³⁾고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子貢이 “管仲이 仁者가 아니겠습니까? 桓

10) 『左氏傳』「襄公」, “天生五材, 民並用之, 廢一不可, 誰能去兵.”

11) 『左氏傳』「昭公」, “且譬之如天其有五材, 而將用之, 力盡而敝之, 是以無拯, 不可沒振.”

12) 『左氏傳』「昭公」, “故天有三辰, 地有五行.”

13) 『論語』「憲問」, “子路曰, 桓公殺公子糾, 召忽死之, 管仲不死. 曰, 未仁乎.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

공은 公子 糾를 죽였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왔습니다.”고 하자, 孔子는 “管仲은 桓公을 도와 霸者가 되게 하고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고 그 은덕을 받았다. 管仲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미개한 사람일 것이다. 어찌 필부가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 도랑에서 목매어 죽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겠는가?”¹⁴⁾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孔子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전체의 시각에서 仁을 해석하고 管仲의 爲民思想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孟子는 管仲을 자기와 비교하는 제자에게 “관중은 君主를 얻어 그와 같이 오로지 하고, 국정을 행한 자가 그와 같이 오래되었으나, 공로의 빛남은 그와 같이 낮기만 하다.”¹⁵⁾고 평가하였다. 孟子는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王道政治에 반하는 管仲의 霸道政治를 혹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管子』는 정치, 경제, 철학, 군사 등의 지식을 집약한 국가경영총서로서 法家, 儒家, 道家, 兵家, 陰陽家의 思想을 두루 포괄한 綜合家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陰陽五行에 관한 사항은 제 1권의 「乘馬」·「幼官」·「幼官圖」, 제 4권의 「樞言」, 제 12권의 「修靡」, 제 14권의 「四時」·「五行」, 제 17권의 「禁藏」, 제 24권의 「輕重」·「己」편에 집중되어 있다.

2. 『管子』 陰陽五行論의 主要 內容

管仲이 추구하는 정치는 富國強兵에 의한 民生安定을 목적으로 한다. 管仲은 民生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陰陽五行을 四時에 배정하고 君主가 행하는 대부분의 정치행위와 사회제도를 陰陽五行과 연계시켰다.

조주는 · 윤무학은 時令思想은 중국 최초의 曆書로 알려진 『大戴禮記』 「夏小正」과 『逸周書』 「時訓解」 편에 원시적 형태가 보이는데, 政令과 구체적으로 결부되기 시작한 것은 『黃帝內經』이며,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심화된 것은 『管子』부터라고 평가한다.¹⁶⁾ 『管子』 「乘馬」편에는 다음과 같은 陰陽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春夏秋冬은 陰陽이 미루어 이동하는 것이고, 계절의 길고 짧음은 陰陽의 상호작용이며,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陰陽의 변화이다. 그런즉 陰陽은 바른 것이며, 비록 바르지 않더라도 남는 것은 덜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보탬 수 없다. 하늘과 땅은 덜거나 보탬 수 없다. 그런즉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은 땅이다.¹⁷⁾

사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을 陰陽의 消息작용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의 핵심이

仁, 如其仁.”

14) 『論語』 「惠問」, “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 又相之. 子曰, 管仲相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於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15) 『孟子』 「公孫丑上」, “管仲, 得君, 如彼其專也, 行乎國政如彼其久也, 功烈如彼其卑也.”

16) 조주는 · 윤무학, 『『呂氏春秋』에서의 陰陽과 五行의 結合』, 『한국철학논집』 42, 2014, 147~148쪽 참조.

17) 『管子』 「乘馬」, “春秋夏, 陰陽之推移也. 時之短長, 陰陽之利用也. 日夜之易, 陰陽之化也. 然則陰陽正矣, 雖不正, 有餘不可損, 不足不可益也. 天地莫之能損益也. 然則可以正政者地也.”

땅에 있다고 보고, 땅에 영향을 주는 因子로 陰陽을 꼽고 있는 것이다.

소비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잘 드러난 「侈靡」편에서는 “陰陽은 때에 맞추어 교체하며, 겨울이 지나치면 여름이 덥고, 그 陽이 지나치면 陰이 춥다. 따라서 王은 冬至·夏至에 삼가고 비고 찬 곳을 알아서 政令을 만듭니다.”¹⁸⁾고 하면서 陰陽에 의한 政令의 원칙을 桓公에게 제시하고 있다. 「禁藏」편에서도 각 계절에 적합한 政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근본은 天時를 얻어 經을 삼고, 民心을 얻는 것을 紀로 삼는다.……봄에는 五正을 펴고, 여름에는 五德으로 상주며, 가을에는 五刑을 집행하고, 겨울에는 五藏으로 거둔다.……봄에는 仁하게 하고 여름에는 정성을 다하며, 가을에 엄하게 하고 겨울에 단는 것이 하늘의 때에 순응하고 땅의 마땅함에 맞으며 사람의 조화에 충실한 것이다.¹⁹⁾

봄·여름에는 德을 시행하고, 가을·겨울에는 刑을 시행한다는 陽德陰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幼官」편과 「幼官圖」편에서는 君主의 일상생활과 정치가 五行에 배속되고 계절별로 政令이 제시된다.

입춘에 君主의 옷은 청색이고 신맛을 보며, 角음을 듣고 마른 기운을 다스리며 8數를 쓴다.……이것은 그림의 東方이나 東方의 바깥에 자리한다.……입하에 君主의 옷은 적색이고, 쓴맛을 보며, 脣음을 듣고, 陽氣를 다스리며 7數를 쓴다.……이는 그림의 南方이나 南方의 바깥에 자리한다. 입추에 君主의 옷은 백색이고, 매운맛을 보며, 商음을 듣고, 濕氣를 다스리며 9數를 쓴다.……이것은 그림의 西方이나 西方의 바깥에 자리한다. 立冬에 君主의 옷은 흑색이고, 짠맛을 보며, 치음을 듣고, 陰氣를 다스리며 6數를 쓴다.……이것은 그림의 北坊이나 北坊의 바깥에 자리한다.²⁰⁾

각 계절을 기준으로 色·味·音·數·方 등을 배속하고 政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별도로 늦여름에 “君主의 옷은 黃色이고 맛은 단맛이며 宮聲을 듣고 和氣를 다스리며 五數를 쓰고 중앙의 우물을 마신다.”²¹⁾하면서 五行을 배속하였으나, 政令은 제시하지 않았다. 「幼官圖」편에서는 군사 분야에서도 五行을 적용한 기록이 있다.

깃발은 청색을 숭상하고, 병기는 창을 숭상한다.……깃발은 적색을 숭상하고, 병기는 긴 창을 숭상한다.……깃발은 흰색을 숭상하고, 병기는 검을 숭상한다.……깃발은 흑색을 숭상하고, 병기는 방패를

18) 『管子』「侈靡」, “陰陽時貸, 其冬厚則夏熱, 其陽厚則陰寒. 是故王者謹於日至, 故知虛滿之所在以爲政令. 已殺生, 其合而未散, 可以決事. 將合可以禹, 其隨行以爲兵. 分其多少, 以爲曲政.”

19) 『管子』「禁藏」, “夫爲國之本, 得天之時而爲經. 得人心而爲紀. ……當春三月. ……發五正. ……夏賞五德. ……秋行五刑. ……冬收五藏. ……春仁夏忠, 秋急冬閉, 順天之時, 約地之宜, 忠人之和.”

20) 『管子』「幼官」, “八舉時節, 君服青色, 味酸味, 聽角聲, 治燥氣, 用八數. ……此居於圖東方方外. ……七舉時節, 君服赤色, 味苦味, 聽羽聲, 治陽氣, 用七數. ……此居於圖南方方外. ……九和時節, 君服白色, 味辛味, 聽商聲, 治溼氣, 用九數. ……此居於圖西方方外. ……六行時節, 君服黑色, 味鹹味, 聽徵聲, 治陰氣, 用六數. ……此居於圖北方方外.”

21) 『管子』「幼官圖」,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治和氣, 用五數, 飲於黃后之井.”

승상한다.²²⁾

五行을 전쟁 시 사용하는 깃발을 계절별로 달리 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병기 자체에 적용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병기를 달리한다는 것으로서 실제 전투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管仲의 사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四時」편에서는 時令의 원칙과 중요성을 밝히는 管仲의 말로 시작한다.

政令은 때가 있으며, 때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오는 까닭을 살피고 순응해도 五가 넘치고 六이 어두우니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오직 성인만이 四時를 안다. 四時를 모르면 곧 국가의 기반을 잃고, 五穀의 이유를 모르면 국가는 길바닥에 앉는다.……따라서 陰陽은 天地의 큰 이치이고, 四時는 陰陽의 큰 도리이다. 刑德은 四時의 숨이니, 刑德이 四時에 부합하면 복을 낳고 어긋나면禍를 낳는다.²³⁾

政令이 반드시 때에 맞아야 생산활동이 이루어져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고 刑德이 四時에 부합해야 복을 낳고禍를 피한다는 것이다. 여름에는 賞을 주고 가을에는 刑을 행해야 한다는 陽德陰刑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陽德陰刑이 포함된 政令을 국가 전체의 농업생산력에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政令이 때에 맞으면 하늘이 비를 통해 感應하여 생산을 돕는다고 보고 있다. 이어 管仲은 陽德陰刑을 강조한다.

해는 陽을 주관하고 달은 陰을 주관하며 별은 和를 주관한다. 陽은 德에 해당하고, 陰은 刑에 해당하며, 和는 事에 해당한다. 따라서 日食은 德을 잃은 나라를 싫어하는 것이고, 月食은 刑을 잃은 나라를 싫어하는 것이고, 彗星이 보이면 和를 잃은 나라를 싫어하는 것이다.……德은 봄에 시작하여 여름에 자라고, 刑은 가을에 시작하여 겨울에 유행하는데, 刑德을 잃지 않으면 四時가 한결 같지만 刑德이 본질에서 이탈하면 四時가 역행하여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²⁴⁾

德은 봄·여름에 시행하고, 刑은 가을·겨울에 시행하는 것이며, 이를 지켜야 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管仲은 사계절에 적합한 政令을 제시한다.

동방은 星, 때는 봄, 기운은 바람이라 한다. 바람은 木과 骨을 낳으며, 그 덕은 기쁨이 가득하고 적절한 때를 내는 것이다.……이것은 星의 德이라 부르는데, 星은 바람을 담당한다.……따라서 춘삼월은 甲乙의 날로 다섯 政令을 선포한다. 제 1정령은 어린이와 고아를 배려하고 죄인을 사면한다. 제 2政令

22) 『管子』 「幼官圖」, “旗物尚青, 兵尚矛.……旗物尚赤, 兵尚戟.……旗物尚白, 兵尚劍.……旗物尚黑, 兵尚盾.”

23) 『管子』 「四時」, “令有時, 無時則必視順天之所以來, 五漫漫, 六惛惛, 庸知之哉. 唯聖人知四時. 不知四時, 乃失國之基. 不知五穀之故, 國家乃路.……是故陰陽者, 天地之大理也, 四時者, 陰陽之大經也. 刑德者, 四時之合也, 刑德合於時, 則生福, 詭則生禍.”

24) 『管子』 「四時」, “日掌陽, 月掌陰, 星掌和, 陽為德, 陰為刑, 和為事, 是故日食, 則失德之國惡之. 月食, 則失刑之國惡之. 彗星見, 則失和之國惡之.……德始於春, 長於夏, 刑始於秋, 流於冬, 刑德不失, 四時如一, 刑德離鄉, 時乃逆行. 作事不成, 必有大殃.”

은 벼슬의 등급을 부여하고 녹위를 준다. 제 3政令은 얼음이 녹으면 도랑을 정리하고 도망자를 다시 복귀시킨다. 제 4政令은 험한 길을 단장하고 땅의 경계를 수리하며 밭길을 바로잡는다. 제 5政令은 어린 사슴을 잡지 않고 꽃을 뽑거나 꽃받침을 꺾지 않는다. 다섯 政令이 만일 때에 맞으면 봄비가 온다.²⁵⁾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서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따라서 管仲은 씨뿌리고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인력을 늘려서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봄의 政令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管仲은 여름에 적합한 政令을 제시한다.

남방은 日, 때는 여름, 기운은 陽이라 한다. 陽은 火와 氣를 낳으며 그 덕은 은덕을 베풀고 풍류를 익히는 것이다.……중양은 토라 하는데, 土의 德은 실제로 사계절의 입출을 돕는데, 바람과 비로 토를 절제하고 힘을 늘린다. 토는 피부와 살을 낳고, 그 덕은 和平하고 균형있게 쓰며 中正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다.……따라서 여름 석 달은 丙丁의 날로써 다섯 政令을 선포한다. 제 1政令은 功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구해서 천거한다. 제 2政令은 오래된 무덤과 오래된 집과 오래된 땅굴을 열어서 양식을 빌려준다. 제 3政令은 선동하고 사탕 쓰고 떠나는 것을 금하고, 거두어 가거나 면제하는 것을 금하며, 밭의 농막을 급하게 헐지 않는다. 제 4政令은 德이 있고 백성에게 베풀 사람을 찾아 상을 준다. 제 5政令은 그물로 짐승을 잡지 말고 나는 새를 죽이지 않는다. 다섯 政令이 만일 때에 맞으면 여름비가 온다.²⁶⁾

여름은 만물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절로서 봄에 뿌린 씨가 잘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한 계절이기도 하다. 따라서 管仲은 五穀의 성장에 功이 있는 자에게 賞을 주면서 생산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政令을 설정하고 있다.

西方은 辰, 때는 가을, 기운은 陰이라 한다. 陰은 金과 껍데기를 낳으며, 그 德은 근심과 슬픔, 조용하고 바름, 엄숙하고 순응, 거처에 감히 방탕하지 않음이다.……이것은 辰의 德이라 하며 辰은 모으는 것을 주관하는데, 모으는 것은 陰이다.……따라서 가을 석 달은 庚辛의 날로 다섯 政令을 선포한다. 제 1政令은 博塞을 금지하고, 小辯을 금하며, 譯跽를 다룬다. 제 2政令은 五兵의 칼날을 보이지 않는다. 제 3政令은 旅農을 신중히 하고 聚收를 즐겁게 한다. 제 4政令은 창고의 균열을 보수한다. 제 5政令은 담장을 수리하고 문을 둘러본다. 다섯 政令이 만일 때에 맞으면 五穀이 모두 들어온다.²⁷⁾

25) 『管子』「四時」, “東方曰星,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贏, 而發出節時.……此謂星德, 星者掌發為風.……是故春三月以甲乙之日發五政, 一政, 曰諭幼孤, 舍有罪. 二政, 曰賦爵列, 授祿位. 三政, 曰凍解修溝瀆, 復亡人. 四政, 曰端險阻, 修封疆, 正千伯. 五政, 曰無殺戮天, 毋蹇華絕芋. 五政苟時, 春雨乃來.”

26) 『管子』「四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入出, 以風雨節土益力, 土生皮膚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是故夏三月以丙丁之日發五政. 一政, 曰求有功發勞力者而舉之. 二政, 曰開久墳, 發故屋, 辟故窮, 以假貸. 三政, 曰令禁扇去笠毋扱免, 除急漏田廬. 四政, 曰求有德賜布施於民者而賞之. 五政, 曰令禁置設禽獸, 毋殺飛鳥, 五政苟時, 夏雨乃至.”

27) 『管子』「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 靜正, 嚴順, 居不敢淫佚. 此謂辰德. 辰掌收, 收為

가을에는 五穀을 빠짐없이 거두어 다음 수확기까지 저장하고 지키는 陰刑의 政令을 설정하고 있다. 이어 管仲은 겨울에 적합한 政令을 제시한다.

北方은 月, 때는 겨울, 기운은 차다고 한다. 차가움은 水와 氷을 낳으며, 그 德은 순박하고 따뜻하게 용서하며 세심하다.……이는 月의 德이라 하는데, 月은 罰을 주관하고 罰은 차갑다.……따라서 겨울 석 달은 壬癸의 날로 다섯 政令을 선포한다. 제 1政令은 고아와 홀아비를 배려하고 노인을 구휼한다. 제 2政令은 陰의 기운에 잘 순응하고 사당을 수선하며, 작록을 부여하고 준비된 자리를 준다. 제 3政令은 회계에 힘쓰고, 산천의 저장물을 꺼내지 않는다. 제 4政令은 강간하고 숨은 자를 체포하고 도적을 잡은 자에게 상을 준다. 제 5政令은 도주를 금하고 유민을 방지하며 따로 갈라지는 것을 막는다. 다섯 政令이 만일 때에 맞으면 겨울 일은 지나침이 없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며,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제압할 것이다.²⁸⁾

겨울은 생산활동이 멈추는 계절이다. 따라서 겨울의 政令은 그동안 미루었던 刑을 집행하여 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산결과의 배분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구제책과 유민 방지책도 포함시켜 민생안정을 꾀하고 있다.

「四時」편에서는 陰陽과 五行의 계절배속이 가장 큰 특징이다. 봄·여름은 陽, 가을·겨울은 陰으로 각각 계절에 배속한 것이다. 五行은 天干을 계절에 배속했는데, 春三月은 甲乙로, 夏三月은 丙丁으로, 秋三月은 庚辛으로, 冬三月은 壬癸로 한다는 것이다. 干支 중 地支는 언급이 아직 없다. 그런데 天干을 陰과 陽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陰陽과 五行이 결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五行을 계절에 배속하고, 봄·여름에는 陽, 가을·겨울에는 陰을 각각 배속했을 뿐이다. 五行의 계절 배속에서 五行과 季節의 숫적 불일치는 영원한 難題이다. 여기서는 土의 德은 실제로 사계절의 입출을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土를 별도로 배속하지 않고 여름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土가 주관하는 계절이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政令을 설정하지 않았다. 「五行」편에는 五行의 淵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 황제는 그 완급으로 五聲을 만들었다.……五聲이 이미 조화를 이룬 연후에 五行을 세움으로써 天時를 바로 잡고, 五官으로 사람의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사람과 하늘이 조화를 이룬 연후에 天地가 바르게 낳을 수 있다.²⁹⁾

五行을 五聲보다 나중에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季節의 五行 배속을 제시한다.

陰.……是故秋三月以庚辛之日發五政. 一政, 曰禁博塞, 園小辯, 門譯踞. 二政, 曰毋見五兵之刃. 三政, 曰慎旅農, 趣聚收. 四政, 曰補缺塞圻. 五政, 曰修牆垣, 周門閭, 五政苟時, 五穀皆入.”

28) 『管子』「四時」,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怒周密.……此謂月德, 月掌罰, 罰為寒.……是故冬三月以壬癸之日發五政. 一政, 曰論孤獨, 恤長老. 二政, 曰善順陰, 修神祀, 賦爵祿, 授備位. 三政, 曰效會計, 毋發山川之藏. 四政, 曰捕姦遁, 得盜賊者有賞. 五政, 曰禁頡頏, 止流民, 園分異. 五政苟時, 冬事不過, 所求必得, 所惡必伏.”

29) 『管子』「五行」, “昔黃帝以其緩急, 作五聲.……五聲既調, 然後作立五行, 以正天時. 五官以正人位, 人與天調, 然後天地之美生.”

冬至에서 甲子를 보면 木行이 주관한다.……72일로 끝나 丙子를 보면 火行이 주관한다.……72일로 끝나 戊子를 보면 土行이 주관한다.……72일로 끝나 庚子를 보면 金行이 주관한다.……72일로 끝나 壬子를 보면 水行이 주관한다.……72일로 끝나 甲子를 보면 木行이 주관한다.³⁰⁾

「五行」편에서는 육십갑자의 형태로 干支가 계절에 배속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러나 冬至를 기준으로 72일씩 균등 배속했기 때문에 계절의 운행과는 괴리가 발생한다. 冬至를 기준으로 한 것은 周나라의 冬至 歲首를 반영한 것이다.³¹⁾ 여기서 五行과 干支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 쉬우나, 甲子·丙子·戊子·庚子·壬子에서 子는 단순히 시작일로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地支를 계절에 배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土를 포함한 五行이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72일씩 균등하게 배속된 것은 계절과 五行의 숫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숫적 불일치는 해소되지만 계절의 운행과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木火土金水의 순서를 놓고 五行相生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木이 火를 낳고, 火가 土를 낳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한편 「輕重·己」편에서는 제사의식을 위주로 각 계절의 政令이 제시되어 있다.

冬至부터 시작하여 46일을 세면 겨울이 다하고 봄이 시작된다. 천자는 동쪽으로 나가 도성 46리에 제단을 세우고, 청색 옷을 입고 청색 관을 쓴다.……해에게 제사 지내는데 생선을 제물로 바치고 政令을 선포하면서 말한다. “살리되 죽이지 말고, 賞을 주되 벌하지 말며, 죄인은 옥살이를 시키되 처단하지 말고 연말까지 기다려라.”……冬至부터 시작하여 92일을 세면 춘분에 이른다. 천자는 동쪽으로 나와 도성 92리에 제단을 세운다.……별에게 제사 지내면서 말한다. “10일 안에 집에 여자가 없게 하고 길에 행인이 없게 한다. 작물을 심지 않는 사람은 도적이다.”³²⁾

「輕重·己」편의 제사의식의 특징은 제사일과 제사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봄의 제사일은 冬至를 기준으로 하고, 제사 장소는 冬至에서의 날짜만큼 도성에서 떨어진 지점이다. 봄에는 해에게 제사지내는데 만물이 소생할 때 햇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 때문이다. 봄의 政令은 생명의 씨 뿌리는 시기에 생명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춘분부터 시작하여 46일을 세면 봄이 다하고 여름이 시작된다. 천자는 황색 옷을 입고 조용히 거처한다.……별에게 제사 지내며 政令을 선포하면서 말한다. “대중을 모으지 말고 큰 불을 내지 말며, 큰 나무를 베지 말고 大臣을 베지 말며, 큰 산을 끊지 말고 큰 연못을 메우지 말라. 세 가지 큰 것을 멸하

30) 『管子』「五行」, “日至, 賭甲子木行御.……七十二日而畢, 賭丙子, 火行御.……七十二日而畢, 賭戊子, 土行御.……七十二日而畢, 賭庚子, 金行御.……七十二日而畢, 賭壬子, 水行御.……七十二日而畢, 賭甲子, 木行御.”

31) 『論語集註』「衛靈公」, “故斗柄建此三辰之月, 皆可以爲歲首而三代迭用之. 夏以寅爲人正, 商以丑爲地正, 周以子爲天正也.”

32) 『管子』「輕重·己」, “以冬至至始, 數四十六日, 冬盡而春始, 天子東出其國四十六里而壇, 服青而纁青.……號曰祭日. 犧牲以魚, 發號出令曰. 生而勿殺, 賞而勿罰, 罪獄勿斷, 以待期年.……以冬至至始, 數九十二日, 謂之春至. 天子東出其國九十二里而壇.……號曰祭星. 十日之內, 室無處女, 路無行人, 苟不樹藝者, 謂之賊人.”

면 국가에 해가 있다.”……춘분부터 시작하여 92일을 세면 하지라고 부르는데, 보리가 익는다. 천자는 太宗에서 제사지내며, 보리로 제물을 채운다. 보리는 穀의 시작이다.³³⁾

여름 제사의식의 특징은 천자가 입는 衣冠의 色에서 차이가 난다. 「幼官」·「幼官圖」편에서는 여름에는 赤色이고 土에 해당하는 기간만 黃色이지만, 「輕重·己」편은 여름 衣冠 전체의 색이 黃色이다. 여름의 政令은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에 기운을 분산시켜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부터 시작하여 46일을 세면 여름이 다하고 가을이 시작되며 기장이 익는다. 천자는 太祖에서 제사를 지내며, 기장으로 제물을 채운다.……하지부터 시작하여 92일을 세면 추분이라고 하는데 추분에는 벼가 익는다. 천자는 태예에서 제사지내는데 서쪽으로 나가 도성 138리에 제단을 세우며, 흰 옷을 입고 흰 관을 쓴다.……달에게 제사지내는데 돼지를 제물로 쓰라고 말하고 政令을 선포하면서 말한다. “벌을 주되 상을 주지 말며, 거두어들여되 베풀지 말며, 죄인을 가두거나 죽이되 살려주지 말며, 해를 넘기는 죄는 사면하지 마라.”³⁴⁾

가을에는 陰刑을 주관하는 달에게 제사지내고, 政令은 수확물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추분부터 시작하여 46일을 세면 가을이 다하고 겨울이 시작된다. 천자는 흑색 옷을 입고 흑색 관을 쓴다.……政令을 선포하면서 말한다. “큰 불을 내지 말고, 큰 산을 끊지 말며, 큰 물을 막지 말고, 하늘이 높음을 범하지 마라.”……추분부터 시작하여 92일이 되면 천자가 북쪽으로 나와 92리에 제단을 세우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관을 쓴다.……점괘를 발하면서 말한다. “山에 사는 사람은 벌목을 하고 기구를 갖추어라. 늑지대 사람은 풀을 베어 땀감을 충분히 비축하라.”³⁵⁾

다른 계절과 비교하여 겨울 제사의식의 특징은 제사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겨울 政令은 五穀의 저장에 방해되는 것을 금하고 겨울철 추위를 준비하는 것이다.

「輕重·己」편은 다른 편과는 달리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時令思想을 제시하고 있다. 계절별로 두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대상, 장소, 제물, 衣冠 등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四時」편에서 災異현상을 하늘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식하고 天地의 運行에 부합하는 政令을 강조한다.

33) 『管子』「輕重·己」, “以春日至始, 數四十六日, 春盡而夏始, 天子服黃而靜處, ……發號出令曰, 毋聚大眾, 毋行大火, 毋斷大木, 誅大臣, 毋斬大山, 毋戮大衍, 滅三大而國有害也, ……以春日至始, 數九十二日, 謂之夏至, 而麥熟, 天子祀於太宗, 其盛以麥, 麥者, 穀之始也.”

34) 『管子』「輕重·己」, “以夏日至始, 數四十六日, 夏盡而秋始, 而黍熟. 天子祀於太祖, 其盛以黍. ……以夏日至始, 數九十二日, 謂之秋至, 秋至而禾熟, 天子祀於太歲, 西出其國百三十八里而壇, 服白而純白. ……號曰祭月. 犧牲以歲, 發號出令曰, 罰而勿賞, 奪而勿予, 罪獄誅而勿生, 終歲之罪, 毋有所赦.”

35) 『管子』「輕重·己」, “以秋日至始, 數四十六日, 秋盡而冬始, 天子服黑純黑. ……發號出令曰, 毋行大火, 毋斬大山, 毋塞大水, 毋犯天之隆. ……以秋日至始, 數九十二日, 天子北出九十二里而壇, 服黑而純黑. ……號曰發絲, 趣山人斷伐, 具械器. 趣涓人薪藎草, 足蓄積.”

봄에 시들고 가을에 꽃피며, 겨울에 천둥치고 여름에 서리나 눈이 오면 이것은 모두 氣가 해치는 것이다. 刑과 德이 계절을 바꾸어 순서를 잃으면 해치는 기운이 빠르게 이르고 해치는 기운이 빠르게 이르면 나라에 재앙이 많다. 따라서 聖王은 때에 맞추어 정치를 의지하고, 교육하여 군무를 시행하며, 제사지내고 덕을 실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成王이 天地의 運行에 부합하기 때문이다.³⁶⁾

봄에 시들고 가을에 꽃피며, 겨울에 천둥치고 여름에 서리나 눈이 오는 등의 災異를 때에 맞지 않은 政令에 대하여 하늘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때에 알맞은 政令과 제사의식을 통해 天地의 運行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天은 자연적 天보다는 의지적 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管子』의 時令思想과 제사의식을 天人關係의 관점에서 보면 災異說을 포함하는 天人感應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무게 중심은 하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管子』의 天 관념은 漢代 董仲舒의 天人感應論 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IV. 『管子』 陰陽五行論의 特徵과 意義

『管子』는 각 편별로 時令思想에 포함된 陰陽과 五行에 관한 내용이 다르다. 「幼官」·「幼官圖」편은 계절을 기준으로 色·味·音·數·方은 물론 심지어 兵器에까지 배속시켰다. 다만 陰陽이나 五行의 계절 배속에 관한 내용은 없다. 「四時」편에서는 陰陽이 계절에 배속되었고, 五行 중 木火金水가 陰陽을 구분하지 않은 채 天干을 중심으로 四季節에 배속되었으며 土는 제외되었다. 甲乙, 丙丁, 庚辛, 壬子를 陰과 陽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陰陽과 五行이 직접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다. 「五行」편에서는 六十甲子 형태로 干支를 冬至를 시작점으로 하여 72일씩 균등 배속했다. 「輕重·己」편은 제사의식을 위주로 계절별로 時令思想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陰陽의 五行의 계절 배속에 관한 내용은 없다. 『管子』에 각 편의 時令思想에 나타난 陰陽과 五行의 배속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봄에는 五正, 여름에는 五德, 가을에는 五刑, 겨울에는 五藏이라는 時令의 원칙을 제시한 「禁藏」편은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管子』 각 편의 陰陽五行 配屬

區分	「幼官」·「幼官圖」					「四時」				「五行」						「輕重·己」			
季節	春	夏	五和	秋	冬	春	夏	秋	冬	72일	72일	72일	72일	72일	72일	春	夏	秋	冬
五色	青	赤	黃	白	黑											青	黃	白	黑
五味	酸	苦	甘	辛	鹹														

36) 『管子』「四時」, “春凋秋榮, 冬雷夏有霜雪, 此皆氣之賊也刑德易節失次, 則賊氣速至, 賊氣速至, 則國多災殃, 是故聖王務時而寄政焉, 作教而寄武, 作祀而寄德焉, 此三者聖王所以合於天地之行也.”

區分	「幼官」·「幼官圖」					「四時」				「五行」					「輕重·己」			
五音	角	羽	宮	商	徵													
五數	8	7	5	9	6													
五方	東	南	中	西	北										東	南	西	北
兵器	矛	戟		劍	脅盾													
祭物															魚	麥	黍稷	-
崇拜對象						星	日	辰	月						日星	星	月	-
陰陽						陽	陽	陰	陰									
五行						木	火	金	水	木	火	土	金	水				
干支						甲乙	丙丁	庚辛	壬癸	甲子	丙子	戊子	庚子	壬子				

표를 보면 「輕重·己」편은 다른 편에 비해 다른 점이 많다. 君主가 여름제사 때 입는 衣冠의 色에서 「幼官」·「幼官圖」편과 차이가 나고, 숭배대상에서도 「四時」편과 「輕重·己」편과 차이가 난다. 또한 「輕重·己」편에서 봄에 해당하는 제사의 대상은 日와 星으로 중복되고, 겨울에 해당하는 제사의 대상은 없다. 제물도 가을은 기장과 돼지로 중복되고, 겨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기서 「輕重·己」편의 著者和 저술연대는 다른 篇과 다를 수 있다는 說에 무게가 실린다.

陰陽과 五行의 계절 배속이 편 별로 다르다. 「幼官」, 「幼官圖」편과 「輕重·己」편에서는 陰陽이나 五行을 계절에 배속시키지 않았다. 「四時」편에서는 土가 사계절의 入出을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절에 배속하지 않았다. 「五行」편에서는 五行을 육십갑자 형태로 冬至를 시작으로 72일씩 균등하게 배속함으로써 숫적 불일치는 해결하였지만, 季節의 운행과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이러한 내용상의 차이는 『管子』의 著者和 저술연대가 篇 별로 다를 수 있다는 說에 무게를 실어준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각의 자연현상이었던 陰陽과 五行이 직접 결합된 것은 아니지만, 계절이라는 틀 속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尙書』, 『詩經』, 『左氏傳』 등 이전 著述에서 陰陽과 五行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였다.

V. 結 論

陰陽五行論은 처음에 자연현상으로 시작하여 인간화되고 다시 객관화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화의 방향은 공동체 중심의 통치 이념화에서 개인 중심의 술수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陰陽五行論의 통치 이념화는 『管子』의 時令思想에서 시작되었다. 陽德陰刑, 五行에 의한 服色과 兵器 등의 統一 등이 그 예이다. 『管子』에서는 富國強兵과 民生安定을 목적으로 君主가 행하는 대부분의 정치행위와 사회제도를 陰陽五行과 연계시

켰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管子』의 時令思想은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陰陽五行論을 농업생산증대에 연
계시킨 爲民思想이라고 할 수 있으며 陽德陰刑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管子』에서는 災異를 때에 맞지
않은 政令에 대하여 天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의 天은 자연적 天보다는 의지적 天에 가깝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管子』의 時令思想과 제사의식을 天人關係의 관점에서 보면 災異說을 포함하는 天
人感應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무게 중심은 하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管子』에서는 陰陽과 五行이
최초로 抽象化되었다. 계절에 대해서는 陰陽과 五行이 배속되고, 色·味·音·數·方·兵器 등에 대해서는
五行이 배속되었다. 그러나 陰陽과 五行이 직접 결합된 것은 아니다. 五行의 계절배속은 干支 중 天干만 해
당되고 地支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陰陽과 五行이 계절이라는 틀 속에서 각각 배속된 것이 직접 결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管子』에서 陰陽과 五行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陰陽五行論과 관련된 각 편
의 내용적인 차이는 『管子』의 저자와 저술연대가 篇 별로 다를 수 있다는 說을 뒷받침한다.

『管子』의 陰陽五行論은 이후 『呂氏春秋』, 『淮南子』, 『春秋繁露』, 『白虎通義』 등으로 전승되면서 중국철학
의 핵심사상이 되었고, 이후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呂氏春秋』, 『淮南子』,
『春秋繁露』, 『白虎通義』 등은 다음 과제로 미룬다.

〈參考文獻〉

1. 古典

『尚書』, 『詩經』, 『左氏傳』, 『管子』, 『呂氏春秋』, 『淮南子』, 『春秋繁露』, 『白虎通義』,
『史記』, 『漢書』 『藝文志』

2. 單行本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관자』, 소나무, 2006.
이세열(역), 『漢書藝文志』, 자유문고, 2005.
정영호(역), 『呂氏春秋 十二紀』, 자유문고, 2006.
정태현(역), 『春秋左氏傳』, 전통문화연구회, 2001.
謝浩范·朱迎平, 『管子 全釋』, 貴州人民出版社, 1996.
梁啓超·徐復觀·郭爲·馮友蘭 著, 김홍경 編譯,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鄭芷人, 『陰陽五行及其體系』, 文津出版社, 1992
許匡一, 『淮南子 全釋』, 貴州人民出版社, 1993.

3. 論文

김학목, 「干支와 陰陽五行의 結合時代」, 『철학논집』 25, 2011.

- 박동인, 「鄒衍의 五行相勝說과 相生說의 구조와 함의」, 『철학연구』 84, 2009.
- 심우섭, 「管子 政治哲學思想의 現代의 照明」, 『동양철학연구』 21, 1999.
- 장승구, 「管子的 철학사상 연구」, 『한국철학논집』 45, 2015.
- 정용미, 「管자의 정치관에 나타난 위민의식」, 『철학논총』 29, 2010.
- 조주은 · 윤무학, 「『呂氏春秋』에서의 陰陽과 五行의 結合」, 『한국철학논집』 42, 2014.
- 樂愛國, 「『管子』의 陰陽五行說與自然科學」, 『管子學刊』 2, 1994.
- 樂愛國, 「『管子』與『禮記·月令』科學思想之比較」, 『管子學刊』 2, 2005.
- 白奚, 「中國古代陰陽與五行說的合流 - 『管子』陰陽五行思想新探」, 『中國社會科學』 5, 1997.
- 申鎮植, 「『呂氏春秋』 思想 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5.
- 曹立明, 「『管子』 四時觀念의 生態意蘊」, 『三峽大學學報』 39, 2017.
- <http://ctext.org/zh>(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0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9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9월 2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Guanzi's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Lee, Myungjae*

This paper examines the distinct features of Yin-Yang and Five Elements(陰陽五行) in Guanzi(管子). Yin-Yang(陰陽) and Five Elements(五行) respectively represented natural phenomena at the beginning, but became abstract and a ruling ideology going through the Warring States period. It began from Guanzi(管子)'s The thought of seasonal proper policy(時令思想) that Yin-Yang and Five Elements became a ruling ideology. In Guanzi, most of political actions a king takes and soci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and the stability of public welfare were related to Yin-Yang and Five Elements. As for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Guanzi, first, Guanzi's The thought of seasonal proper policy can be said to be the idea for the benefit of people that related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to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aiming at stabilization of public welfare, and reflects the principle of Yang-reward and Yin-punishment(陽德陰刑). Second, Guanzi's The thought of seasonal proper policy can be said to be The theory of heaven and humans response(天人感應論) that includes The intimate theory(災異說)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ven and humans. Yet, the focus is on the heaven. Third, Yin-Yang and Five Elements became abstract in Guanzi for the first time. As for seasons, Yin-Yang and Five Elements were assigned, and regarding color, taste, sound, number, bearing, weapon and others, Five Elements were assigned. However, the ten celestial stems were not divided into Yin-Yang, so Yin-Yang cannot be seen to be combined with Five Elements. Fourth,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related to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prove the view that writers and the year of writing each chapter of Guanzi can be different. Guanzi's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became one of main frames of Chinese philosophy later being transmitted to Yeossichunchu(呂氏春秋), Huainanzi(淮南子), Chunchubeonro(春秋繁露), Baekhotongui(白虎通義) and etc.

[Key Words] Yin-Yang(陰陽), Five Elements(五行), The theory of heaven and humans response(天人感應論), The thought of seasonal proper policy(時令思想), The thought for the benefit of people(爲民思想)

* Ph. D. Candidate,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